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19.(목) 12:00
(지 면) 2026. 11. 20.(금) 조간

행안부·농식품부,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 총력 대응

- 농식품부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이 주재
- 지방정부 가축 방역과 재난관리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19일(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 (참석) 행안부, 농식품부, 기후부, 질병청, 검역본부, 방역지원본부, 16개 시도, 12개 시군(산란계 밀집 지역)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주재했으며, 기존 방역부서 중심에서 재난관리부서 등 관계부서까지 참석 대상을 확대하여 총력대응체계를 중점 점검했다.

이는 고병원성 AI가 11월 3일 경기 연천에서 처음 발생한 뒤,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산란계를 중심으로 발생이 이어지고, 다양한 혈청형(H5N1, H5N9)이 확인되는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총 9건(5개 시·도/9개 시·군) : 산란계 3호, 오리 3호, 기타 3호(11.18.오전 9시 기준)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 운영 및 재난안전특교세*(방역대책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가축 방역부서가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가 지원하도록 주문했다.

* 11월 9일 70억 원 교부(지난해보다 15일 빠르고, 20억 증가)

이와 함께 가축처분·소독·이동통제 등 방역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점검* 중간결과를 공유하였다.

* 합동 점검시 주요 미흡사항으로 농장 출입 차량의 진입 전 2단계 소독 위반 총 4건(1차 고정식 소독, 2차 고압분무 소독)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조류 AI 검출정보를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하고, 고병원성 AI 검출지 주변 폐사체 수색과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소독·출입통제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철새 본격 도래와 발생이 증가하는 매우 엄중한 시기로 지난 시즌에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이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형배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대본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가축 방역부서와 재난관리부서가 협력하여 고병원성 AI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팀’으로 지방정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면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행안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이종윤 (044-205-6190)
		담당자	서기관	권혁배 (044-205-6192)
담당 부서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044-201-25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